

스마트한 안전보건경영체계로 완성하는 '중대재해 트리플 제로'





안전보건실

KT는 폭넓은 안전보건 시야를 갖추고 있다. 본사의 안전보건을 넘어 그룹사(계열사)와 파트너사(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중대재해 트리플 제로(Triple Zero)'를 목표로 튼튼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 중인 것. 이를 위해 KT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과 다각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원대한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김재이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촘촘한 안전보건체계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로 잘 알려진 KT는 무선통신·초고속인터넷·IPTV 등 정보통신사업과 함께 금융·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의 강점인 높은 인공지능(이하 AI)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적극 활용해 B2B 중심의 AI 전환(AI) 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AI와 ICT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AICT 전문기업의 지위를 공고하게 다지고 있다.

KT의 AICT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두텁게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KT는 그룹사(계열사)와 파트너사(협력사)를 통해 각종 설치 및 건설공사를 전국 각지에서 수행했고, 작년에만 약 866만 건의 크고 작은 작업이 이뤄졌다.

KT 안전보건실 산하의 안전보건진단팀을 이끄는 김은정 팀장은 “현장 작업 시에는 통신주·건물 옥상 등에서 이뤄지는 고소작업에 의한 추락사고 위험, 통신실·전기실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감전사고 위험, 맨홀·저수조 등 밀폐공간에서 일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질식사고 위험 등 다양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고 말하며, 경영진부터 직원 개개인까지 안전 최우선의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KT는 안전 중심 경영을 위해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강화협의회를 개최한다. 매월 열리는 이 회의에서는 KT뿐만 아니라 그룹사까지 참여하여 다양한 안전보건 이슈를 공유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보완 및 이행 사항을 이야기한다. 또한, 안전보건총괄(CSHO) 임현규 부사장은 분기별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주관한다. 주요 안전보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한 실행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다.

전국 사업장마다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비롯해 제도 개선 의견 등을 논의하며, 제안된 의견은 모두 현황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거친다. 또한 KT는 온라인 건의시스템, KT119 신고, 사옥별 건의함 운영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종사자가 위험 요인을 언제나 보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이처럼 전국의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안전보건체계는 빠른 현장 개선과 안전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사를 넘어 그룹사·파트너사의 안전보건까지

총 인원 60여 명 규모의 안전보건실은 KT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또 하나의 축이다. 안전보건실은 통신·B2B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 업무의 특성에 맞춰 현장 중심으로 안전보건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발 빠르게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실 직원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도 빠짐없이 취득했다. 덕분에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활동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게 김은정 팀장의 이야기다. ‘중대재해 트리플 제로(Triple Zero)’는 이러한 안전보건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KT 본사는 물론 그룹사와 파트너사의 중대재해까지 ‘0’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자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안전보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 플랫폼 ‘올인세이프티(All-in Safety)’다. KT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에 탑재된 올인세이프티는 작업 전 안전보건 위험 요인 사전 확인 및 예방에 초점을 둔 플랫폼으로, 본사·그룹사·파트너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인프라안전팀 이완석 팀장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에 올인세이프티를 활용한다”며 “TBM 활동 관리, 현장 위험 요인 확인, 공사 현황 관리 등 작업 전반기의 안전보건 활동을 업로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실은 업로드된 자료를 살펴봄에 안전보건 활동 및 조치에 이상이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KT는 그들의 AI 역량을 올인세이프티에 아낌없이 적용했다. 이완석 팀장은 “앞으로 실시간 작업 영상 기반 모니터링과 AI 영상 분석을 통해 작업 중 발생하는 위험 요인도 바로바로 찾아내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라며 올인세이프티의 지속적인 고도화 계획을 강조한다. 각 현장에서 올라온 안전보건 현황을 AI가 예측·분석함으로써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작업 중 필요한 안전보호구가 TBM 활동사진에 빠져 있다면, AI가 이를 파악하고 현장 작업자들과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에 나서도록 조치한다.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활동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파트너사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꾸준히 시행 중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나선 바 있으며, 안전물품 및 각종 안전보건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파트너사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지향하다

2022년 서울 강서구의 KT가양빌딩 2, 3층에 수도권 내 업계 최대 규모로 조성한 안전체험교육관도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사고 체험을 중심으로 한 16개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작업 시의 안전 수칙과 활동을 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방문 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T는 임직원의 심신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는 사내 병원을 2개소 운영 중이며, 강북삼성병원과 신체 건강 기준을 설정한 뒤 건강검진 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맞춤형 건강 케어 상담·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KT에서는 임직원의 직무를 고려한 맞춤형 종합 스트레스 검사를 설계해 연 1회 시행한다. 여기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기준 이상으로 높게 나온 경우, 사내 심리상담실 또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감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알찬 KT의 안전보건 활동은 인증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한 KT는 지난해 12월에도 이동사 중 처음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인증을 받으며 자사 안전경영의 우수성을 몸소 증명했다. 2024년에는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제23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에서 통신업계 최초로 안전경영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의경영대상' 안전경영 부문 통신업계 최초 대상 수상,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 '제2회 안전문화혁신대상' 대기업 부문 대상 수상 등 2관왕을 기록했다. KT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안전보건진단팀 장재원 차장은 "우리 회사의 전국 58개 기관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보건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지난 몇 년간의 좋은 성과에 한몫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 현황을 객관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올 1월 시행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현장점검 시에도 생각지 못했던 개선 요소가 다수 발견되어 더욱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KT와 안전보건실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본사·그룹사·파트너사를 포괄하는 종합적 안전보건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구축함으로써 'KT와 함께하는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
늦추지 않는
안전보건의 고삐

KT 안전보건총괄(CSHO)
임현규
부사장



Mini Interview

우리 회사는 지금껏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KT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룹사와 파트너사의 안전보건까지 챙겨, 모두가 안전한 중대재해 트리플 제로(Triple Zero)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외부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대상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전보건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안전보건은 일회성 활동이 아닌, 기업이 존재하는 한 끝까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 노력과 더불어, 본사·그룹사·파트너사의 전근로자가 안전을 일상적 습관으로 여기고 최우선에 둘 수 있도록 더욱 두터운 안전보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